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00-110 주년 표어
감사의 백년, 소망의 백년
(데살로니가전서 5:18)

한글판

shinachoch2003@daum.net (담당자)

2015년 부활절 메시지
부활의 은혜
마태복음 28:1-10
김필순목사 (관서지방회회장, 사카이교회)



부활의 목격자

마태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들로부터 파견 되어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며, 또 하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음을 지켜보고 무덤에 들어 갈 때까지 따라던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중에서도 4 복음서에 모두 이름이 기록되어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 제자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합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천사로부터 주님의 부활을 전해 들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라” 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고하기 위해 서둘러 달려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이 직접 그녀들 앞에 나타나자 여인들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리는 것은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을 예배한 것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에게 엎드려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 또는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의 본질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인 예배는 부활의 주님과와의 만남 없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는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의 사건으로부터 2000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의 물론이며, 또 앞으로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여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을 살아 가는 것입니다.

한편 대제사장에 의해 파견 된 경비병들은 무덤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제사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장로들을 모아서 “예수의 제자들이 한밤중에 와서 자신들이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 갔다” 는 거짓 증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경위로 인하여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계속해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였으므로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독립하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십자가형 판결이 나오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 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악한 제자들이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부터는 박해의 두려움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겁 없이 가서 성전에서 공공연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다” 고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잡히고, 투옥을 당하고, 매를 맞고, 이욕과 순교를 당하여도 두 번 다시는 예수의 제자임을 부정하지 않는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 180 도 전환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과와의 만남입니다.

비겁하게 예수님을 버리고, 죽게 내버려 두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 배신과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 편에서 먼저 “만나자” 고 말 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악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신뢰 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않고 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밝혀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죄와 죽음보다도 강력하다라는 위대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줍니다. 광야처럼 황량한 우리의 마음에 꽃을 피우는 힘입니다.

부활의 은혜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인자로 오셨고, 겸손하셨으며, 자신을 다 드리는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죄를 지 배하는 음부에 내려 가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은 예 수님의 죽은 몸에 빛을 비추시고, 그것을 변화시키셔서 영원한 생 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원래의 지상적인 생 명으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이 들어가서 서 우리에게도 희망의 미래를 열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의해 우리도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은혜는 인간을 끝까지 적극적으로 살게 하시며, 주어진 생명을 완전 연소시키는 힘을 제공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면 크리스천도 거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의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 멸망으로서의 죽음, 심판 으로서의 죽음, 죄의 패배로 인한 죽음, 이러한 죽음의 어둠과 공포, 협박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넘어서 부활에 나타난 승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0.1 %의 가능성이라 할지라도 앞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권면합니다.

부활절에는 예쁘게 색칠 한 계란을 나누어 줍니다. 왜 “계란” 일까요? 그것은 병아리가 계란 껍질을 깨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희망을 막고 있으며, 우리를 어둠에 가두는 단단한 껍질을 깨고, 새롭게 태어나서 나오는 생명입니다. 계란은 그런 생명의 희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로 다시 새로움을 받읍시다.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인생을 바꾸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의 그릇, 평화의 도구로 정의와 평화의 꽃을 피우는 것에 쓰임 받읍시다. 이 부활절에 이러한 멋진 은혜를 다시 확인하면서 걸어가기기를 소원 합니다.

“우리의 희년” (레위기 25:8-12)

재일대한기독교회 「중부지방회 설립 50 주년 기념예배」 설교, 2015 年 2 月 15 日, 나고야교회

김성제목사 (재일대한기독교회 부총회장, 나고야 교회)

※연재 (2)

II. 잊을 수 없는 “50 년”

우리 중부지방회는 지금 창립 50 주년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재일대한기독교회는 잊지 못할 역사상의 “50 년” 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재일본 조선 기독교회” 가 1934 년에 설립 된 것입니다. 1934 年은 조선에 개신교 (기독교) 가 처음으로 전해진 1884 年으로부터 50 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창립을 추진 한 당시의 지도자들은 우연이 아니라 당연히 조선 개신교 (기독교사) 가 50 년째라는 “희년” 을 의식하여 그 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해는 1908 년에 동경 조선 YMCA 에서 재일 한국인 선교가 시작되므로 동경교회가 출발하여 26 년이 경과한 해였습니다. 당시 조선 장로교와 한국 감리교 전도자들은 마음대로 동경에서 서쪽으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927 년부터 일본에 온 L. L. 영 목사 (선교사) 가 교파 합동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합동화는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영 선교사들은 합동 운동의 일환으로 독자적인 헌법을 만들어 목사와 장로의 안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독립적인 재일 교단 창립을 목표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 장로교와 감리교는 독립 교단 창립에 대해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1934 年 2 월에 오사카 동부교회에서 창립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선의 본국 교단의 승인이 없는 출발이었습니다. 4 월에 영 선교사는 조선 장로교회에 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조선 장로교회는 캐나다 합동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가! 합동교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조선 장로교회가 왜 재일 동포 교회가 합동교회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가”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편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재일 코리안 선교에 심혈을 기울였던 영 선교사의 과건 교단은 1925 년에 만들어진 캐나다 합동교회에 반대하여 불참하였던 캐나다 장로교회 소속 선교사였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조선 장로교회는 영 선교사가 편지를 보낸 그 해 9 월, 그리고 조선 감리교회는 10 월에 재일본 조선기독교회 창립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900 년대에 들어가서, 당시 일본의 메이지 (명치) 정부는 1913 年 경에 천황제 국가 신도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10 만을 훨씬 넘는 전국의 신사를 이세신궁 (伊勢神宮) 과 야스쿠니신사 (靖国神社) 아래서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정책을 완성했습니다.

1912 년에는 내무 차관 (床次次郎) 이 “세 교회동” (三教会同) 이라는 회의에 일본 기독교회의 대표까지 초대한 회의를 통하여 천황제 국가 신도 체제하에서 국가의 정책에 협력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독교회가 천황제 국가 신도라는 정치적 우상 숭배에 무릎을 꿇게 되는 본격적인 정책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결국 1939 年の 종교 단체법 성립으로 나아 갔습니다.

즉, 기독교를 포함하여 일본국내의 모든 종교는 천황을 신격화 하는 국가의 강력한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그러한 국가 정책의 흐름 속에서 일본에서는 위로부터의 강력한 힘으로 문답 무응의 개신교 여러 교파들이 합동하여 1941 년에 일본 기독교단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이러한 정책들은 군부의 통제 된 정부의 압력하에서 교의 각오가 없는 한 아무도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모두 특고경찰 (特高警察) 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즉, 일본의 개신교 교회의 합동 (연합) 은 천황제 국가 신도 하에 종속 당한 형태로의 교파 합동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조선에서는 미국 대륙의 각 교파로부터의 강력한 선교 원조 때문에 각 교파의 합동 운동이 일어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동북 아시아는 국가 권력의 손에 의하지 않고, 아래로부터의 힘,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파 합동 (연합) 이 성공하였는데, 그것이 재일 조선 기독교회에서였습니다.

저는 이 재일본 조선 기독교회의 탄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동북아에서의 일본 땅에 디아스포라 (離散) 로서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는 가난한 재일 코리안의 교회를 선택하여 주시고 불로모아 주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교회로 성립 된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사업이었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전해 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가끔 당시의 조선 장로교회가 왜 재일본 조선 기독교회의 독립 교단화에 반대하였는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의 도가 있었을 것이지만, 충분히 생각이 가능한 점은 이것입니다.

즉, 당시 지도자들은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가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면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 된 날에는 동포들이 해방 된 조국에 귀환 할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왜 재일 한국인 교회를 독립 교단으로 존속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在日コリアン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在日本韓国YMCAは皆様と共に歩みます。



東京◆ホテル: 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フロントは日・韓・英語に対応、24 時間営業。10 名様~ 200 名様のお会議及び宿泊研修 (50 名) も可能。
・スペース Y ホール: 200 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対応。
・韓国文化教室【チャング・カヤゲーム・舞踊】・韓国語講座・各種こどもクラス
・YMCA 東京日本語学校【3 ヶ月~ 2 年、短期研修】

税込	平日	休・休前日
シングル	¥6,500	¥6,000
ダブル	¥10,500	¥9,700
トリプル	¥13,500	¥12,500
朝食・コーヒー ¥200 (宿泊者価格)		

関西◆にほんご教室《新規開講・募集中》韓国民俗芸術科【舞踊・チャング】

在日本韓国YMCA <http://www.ymcajapan.org/ayc/jp/>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詳しくは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東京韓国YMCA 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樂町 2-5-5 ☎ 03-3233-0611

関西韓国YMCA 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 3-14-15 ☎ 06-6981-0782

즉, 그들은 1945 년의 해방을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 60 만 명의 동포들이 해방 후에도 재일 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더불어 일본 사회에서와 20 세기 후반과 21 세기 한국과 일본의 애차(愛差)에 있어서 짙어 져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다만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해방 후에 부활하는 재일대한기독교회가 “하나님의 보물 백성” (신명기 7:6) 으로 재일 코리안 사회와 일본 사회 안에서, 또한 한국과 일본 간에 어떤 선교의 토포스를 주셔서 무엇을 위해 파견(파송) 받아야 하는가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주시며,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단 지 그 때 거기서 해야 할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각 자에게 주어진 장소(토포스)을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II. 재일대한기독교회에서 “희년” 과 선교지의 “환매” (還買)

저는 재일대한기독교회가 걸어온 이러한 역사의 의미를 레위기 25 장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파악 해 보고자 합니다. 즉, 1945 년 8 월은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 된 그야말로 재일 코리안과 그리스도인들의 희년의 해방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 12 월에 있었던일본 기독교단에서 재일 코리안과 그리스도인들이 탈퇴하여 “재일본 조선 기독교 연합회” 를 창설한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바로 이것이 레위기 25 장이 말하는 선교의 토포스인 “환매” 가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봅니다.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20 세기 후반부터 21 세기를 향해 사용하려고 하시는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선교의 영역, 또는 장소의 환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해방 직후, 약 210 만 명이었던 재일 코리안 대부분이 귀환하여, 결국 50 여 만 명이 일본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조선 동란(6.25 전쟁)으로 귀환의 길이 완전히 막혀 버렸습니다.

그러나 재일 코리안과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의 사명을 담당하기 위한 장소를 다시 찾으라” 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보물 백성” 이자 “남은 자(세알 야슈부)“(이사야 10:20-23; 11:11,16; 렘 31:7) 로 다시 부르심을 받아 모이게 된 것입니다.

해방 후에도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조국과 그리운 고향으로부터 떨어져서 친족들에게 불효를 하는 죄책감을 마음에 담고, 어쩔 수 없이 재일이 된 사람들은 그 수치심과 아픔을 함께 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히브리서 11:16) 안에서 아무런 권리가 없는 무(無) 권리와 빈곤의 현실 속에서 전후 교회 재건에 기도와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십자가의 사랑의 초막으로 덮어 주시며, 미래 역사의 저편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일본기독교협의회>

NCC 제 39 회 총회



일본기독교협의회(NCC) 제 39 회 총회가 3 월 23 일(월) 과 24 일(화) 양일에 걸쳐서 일본기독교단 레이난자카교회(靈南坂教会)에서 개최되었다. 개최예배는 의장인 코바시목사(小橋孝一)가 「십자가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함께 나아가자」(마태복음 16 장 24 절)는 주제로 설교하였다.

이어서 의사진행에 들어 가서 임원선출과 총간사 선임, 활동방침, 제위원회 설치 등이 승인되었다. 본 총회에서는 김신야목사가 서기로 선출되었다. 특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것은 동일본대지진 지원활동 보고였다. 재일한국인문제연구소(RAIK)의 사토(佐藤信行)소장이 피재지에서 살고 있는 이주 외국인과 어린이들의 실태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둘째 날도 예배를 마친 후에 각 보고와 재정심사위원회와 헌의안위원회 보고 및 사업과 예산을 처리하고 기타 의제와 회의록 승인으로 폐회예배를 하였다.

본 총회에서는 김성제부총회장, 김병호총간사, 허백기 조영석 간사, 이명총목사(위임), 김신야목사, 김방식장로가 참가하였다. 특히 김성제목사는 금년 11 월 18 일부터 21 일에 재일본 YMCA에서 개최되는 <제 3 회 마이너리티문제와 선교 국제회의>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참가를 요청하였다.

제 39 회 총회기의 NCC 임원은 다음과 같다.

<의장: 小橋孝一(일본기독교단), 부의장: 渡部信(일본성서협회), 矢萩新一(일본 성공회), 서기: 金迅野(재일대한기독교회, 요코스카교회), 伊藤剛士(일본 YMCA 동맹), 총간사: 網中彰子(일본기독교단)>

(보고: 편집부)

Advertisement for 'rehoboth.jp' (레호봇·자판) featuring a website URL, phone number (090-3945-3373), and an illustration of a church building.

Advertisement for 'SAIKABO' (妻家房) featuring the slogan '豊かな味、豊かな心。' (Rich taste, rich heart), a logo of a woma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representative (吳永錫) and the main store in Tokyo.

<서부지방회> 교육부주최 제직수련회 개최



2월 15일 (주일), 서부지방회에서는 <행복한 직분자>(데살로니가전서 1:1-10)라는 주제로 제직수련회(교육부 주최)가 개최되었다.

한택주목사(교육부 서기)의 사회로 윤성철장로가 기도한 뒤에 배명덕목사가 강사를 소개하였다. 올해 강사는 본 총회의 최형철목사(히라오까교회)가 나섰다. 최목사는 <행복한 직분자>라는 제목으로 강한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데살로니가교회의 훌륭한 신앙은 믿음에 의하여 일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성경은 믿음의 역사(役使)임을 강조하였다(히브리서 11장). 또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신을 사랑하는 것, 타인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처음 사랑을 깨닫게 되며, 희망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는 것임을 강하게 역설하였다.

참가자들은 각 교회로 돌아가서 사랑과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제직으로 헌신해 나가는 중요성을 배웠다. 올해 참가자는 41명이었다.

(보고: 한택주, 교육부서기)

<중부지방회> 1일 연수회 개최

2월 20일(금), 오전 10시 30분부터 나고야교회에서는 중부지방회 여성연합회와 청년부 공동 주최로 "1일 연수회"가 개최되었다. 제1부에서는 강사로 나선 정수환목사(토요하시교회)가 <하나님과 성경과 세계와 나>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였다.

정목사는 "하나님이란?" 질문으로 시작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왔는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걸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우리의 마음이 강박해 지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경이 있다"는 관련성과 더불어 힘찬 강의를 하였다.



또한 제2부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황선화집사(나고야교회)가 한국 무용을 지도하였다. 참가자들은 작년에 이어서 배우게 되었는데 기본적인 동작과 각 부분에 대하여 신체적으로 적응이 많이 되어 있어서 즐겁게 배우면서 건강한 땀을 흘리고 웃음이 넘쳤다. "올해도 은혜로운 배움과 즐거운 교제를 하게 되었음을 주님께 감사한다".

(보고: 김숙자, 토요하시교회)

<정정 및 사과> 지난 3월호 8면의 한국어 기사 중에서 <서부지방회>와 <서남지방회>의 사진이 바뀌었으므로 4면의 일본어 기사 사진으로 정정하며, 사과 드립니다.

<히메지교회 전화번호 변경 안내> 079-227-9786

전도사, 선교사 연수회 알림

제 52회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신학교시위원회 세칙 변경에 의하여 금년부터 전도사고시 및 목사고시에 전도사연수회 이수가 필수조건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연수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새롭게 총회에 가입한 선교사 연수회도 실시합니다.

- 일정: 2015년 6월 15일(월) - 6월 20일(토)
(개회예배 -14:00) (폐회예배 -11:00) 예정
- 대상: 전도사 및 목사고시 수험자, 가입 선교사
- 장소: 총회신학교(숙박 포함)
- 비용: 참가비는 총회 부담
- 과목: 총회헌법, 재일신학, 총회사, 일본기독교사, 재일 선교학, 에큐메니컬 신학, 총회 예식서 등
- 문의: 서기 박영자목사, 교무 한성현목사

2015년 3월

신학교시위원장 김무사
재일총회신학교교장 정연원

이수정 『마가복음』 출판 130주년 기념
국제 학술 심포지엄 및 답사

1 학술 심포지엄

“이수정의 성경번역과 선교활동”

2015. 6. 30(화) 오전 10:30~오후 5:30
동경 재일한국YMCA 9층 국제홀

일정

제1부
이수정 『마가복음』 출판 130주년 기념예배

제2부
학술 심포지엄
인사왕십

기조강연: 이수정의 성경 번역과 한국교회사적 의미/ 이만열(숙명여대 명예교수)
주제발표1: 성경 번역과 합본(Dr. J C Hepburn) / 岡部一興(요코하마 프로테스탄트사연구회 대표)
주제발표2: 이수정의 성경 번역과 계몽 문제/ 김성은(한남대 교수)
주제발표3: 이수정과 일본기독교와의 관계/ 사정민(메이지기쿠인대학 교수)
종합토론: 이상진(케이샤대학원대학 교수), 이재근(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 겸임교수), 조영철(재일대한기독교회 목사)